

傷寒論

상한과 상한론

오준호

상한의 풍경

상한조열흉만(傷寒潮熱胸滿) 《傷寒經驗方》中

一官人得傷寒，諸醫多用發表之劑，潮熱升降，胸滿不睡。召我診之，脈沈伏緩滑，此未及治挾痰之毒熱，用大承氣湯加生地黃 三錢，日再服五貼，大勢似歇。主家甚喜。

어떤 관리가 상한을 앓게 되어 여러 의원들이 땀내는 약[發表劑]을 많이 썼더니 조열(潮熱)이 오르내리고 가슴이 그득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를 부르기에 진맥을 해보니, 맥이 침복(沈伏)하고 완활(緩滑)하였다. 이것은 담을 끼고 있는 독열(毒熱)을 제때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승기탕\(大承氣湯\)](#)에 생지황 3돈을 더하여 하루에 2차례 먹여 5첩을 썼더니 대세가 멎은 듯하였고, 주인 집안에서는 매우 기뻐하였다.

更診則兩尺有滑數之意. 余曰: “隱熱猶未盡祛, 膈間亦不得利, 及服三白散以滌餘毒.” 主家至親有知醫者, 以爲病輕藥重, 決不可用. 更邀他醫, 用輕清調理之劑, 病人顏色悽慘, 晝夜叫痛. 諸醫不移侍之皆曰: “以脈度言之, 不數必無熱, 而按之無力, 必是氣虛.” 製用六君子湯四貼, 痛聲尤出, 粥飲亦廢. 一醫用月經, 膈間煩滯而不下, 舉家罔措.

다시 진맥을 해보니, 양 척맥에 활삭(滑數)한 기미가 있었다. 내가 “숨어 있는 열을 아직 다 없애지 못했습니다. 흉격 사이도 열담(熱痰)이 풀리지 않았으니, [삼백산\(三白散\)](#)을 복용하여 남은 독을 씻어내어야 합니다.”하고 말하였으나, 주인 집안의 지친(至親) 중 의술을 아는 자가 가벼운 병에 약기운이 센 약은 절대 쓸 수 없다고 하였다.

다시 다른 의원을 불러 가볍고 맑은 성질로 조리해주는 약[輕清調理劑]를 썼더니, 환자의 안색이 처참해지고 밤낮으로 통증을 호소하였다.

여러 의원들이 변함없이 모시며 모두 “맥도(脈度)로 보자면 삭(數)하지 않으니 반드시 열이 없을 것이고, 눌러보아도 힘이 없으니 필시 기가 허한 것입니다.” 하고는, [육군자탕\(六君子湯\)](#) 4첩을 지어 썼더니 아파하는 소리가 더욱 크게 나오고 미음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한 의원이 [월경수\(月經水\)](#)를 썼지만 흉격 사이가 답답하게 막혀 내려가지 않자 온 집안사람들이 손쓸 바를 몰랐다.

余診之, 寸關澁數, 時有結氣, 兩尺沈小滑實. 余曰: “此病下焦隱熱未能滌下, 熱痰窒滿胸膈, 而脈之澁小, 熱傷元氣故也.” 諸醫曰: “誰能洞見臟腑乎?” 相與哂笑

내가 진맥을 해보니, 촌맥과 관맥이 삼삭(澁數)하고 때로 결(結)의 기운이 있었으며, 양 척맥이 침소(沈小)하고 활실(滑實)하였다. 내가 “이 병은 하초에 숨어 있는 열을 다 씻어내리지 못하여 열담(熱痰)이 흉격에 가득 차 막힌 것이니, 맥이 색소(澁小)한 것은 열이 원기를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니, 여러 의원들이, “누가 장부를 꿰뚫어 볼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서로 비웃었다.

“今明間如不用背城之戰，氣血俱竭，難可下手。”病人一家始驚動，懇求藥方。以大承氣湯加生地黃 一兩，日再服，兼以地龍汁調牛黃膏數十丸，日用二器，夜服一器之意，申申叮囑。病家依余言用之二日，病人仍得穩睡有食念，大便滑泄。余又診之，脈始遲而數有力。又勸用二日，大泄之，諸症漸退。改以柴胡四物湯加大黃 二錢，日再服三日而差。

내가 “조만간 배성(背城)의 전투를 치르지 않으면 기혈(氣血)이 모두 고갈되어 손을 쓰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환자의 온 집안사람들이 비로소 놀라 간절히 처방을 구하였다. 때문에 [대승기탕\(大承氣湯\)](#)에 생지황 1냥을 더하여 하루에 2차례 먹이고, 아울러 [지령의 즙](#)에 [오황고\(牛黃膏\)](#) 10환을 타서 낮에는 2그릇, 밤에는 1그릇을 먹이라는 뜻을 신신당부하여 일러주었다. 환자의 집안에서 내 말대로 2일 동안 약을 썼더니 환자가 이윽고 편히 자고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며 대변이 줄줄 나왔다.

내가 또 진맥을 해보니, 맥이 처음에는 지(遲)했으나 삭(數)해지고 힘이 생겼다. 또 2일 동안 더 권하여 썼더니, 크게 설사하고는 여러 증세가 점점 사라졌다. 다시 [시호사물탕\(柴胡四物湯\)](#)에 대황 2돈을 더하여 하루 2차례 3일을 먹이니 나았다.

病人之弟賀曰：“此病若不救，吾嫂氏已磨劍待之矣。必欲刺用藥醫，故吾輩深憂之，今果收效，兩家之多幸。”余聞此言，不覺心悚。如或熱重氣弱，已成陽耗陰竭而不救，則此豈醫罪？不知醫理之婦人，不思用藥之晚，持刀突出，其驚爲如何哉？余治傷寒重病，起死回生，未知幾許，而略服最駭處，以戒後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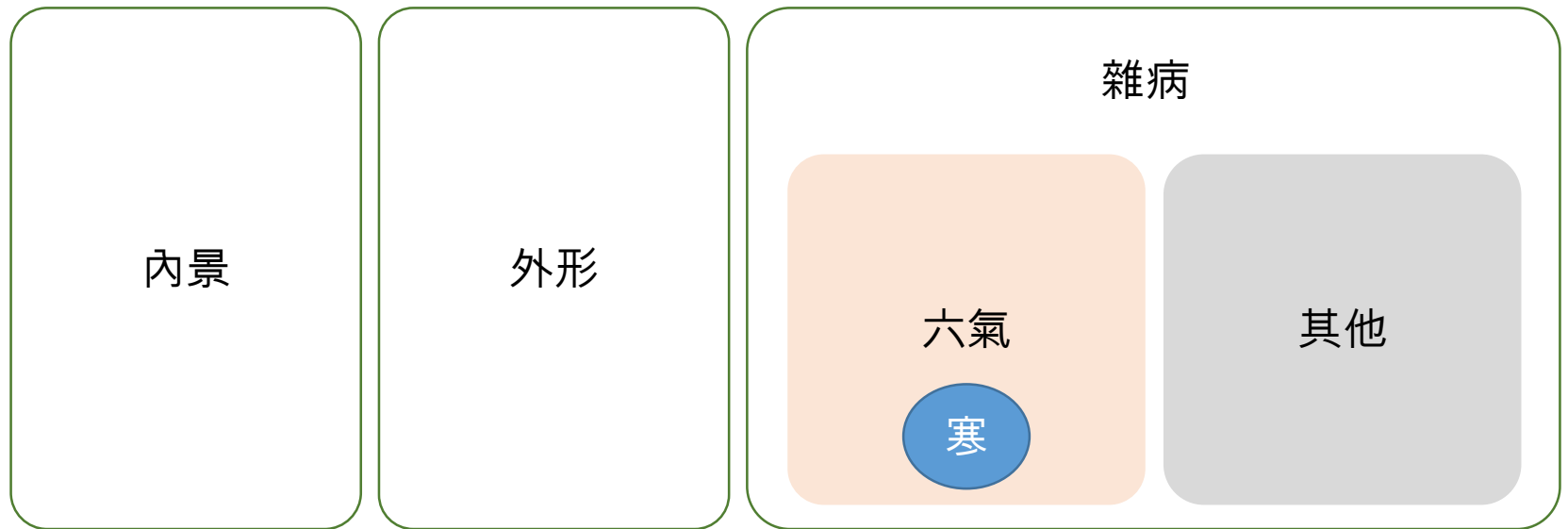
환자의 동생이 하례하며 “이 병에서 살려내지 못했다면, 우리 형수가 이미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어 필시 약을 처방한 의원을 찌르고자 하였을 터라, 우리들은 매우 걱정되었습니다. 지금 마침내 효험을 보았으니 양가의 다행입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들으니 나도 모르게 가슴이 서늘해졌다.

만약 열이 심하고 기가 약하여 양기가 소모되고 음기가 고갈되어 살릴 수 없게 되었다면, 이것이 어찌 의원의 죄란 말인가? 의술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부인이 약을 사용하는 시기가 늦어졌음을 생각지 않고 칼을 들고 튀어나왔다면, 그 놀라움이 어떠했겠는가? 내가 상한의 중병을 고쳐서 기사회생시킨 것이 헤일 수 없지만, 대략 가장 놀라운 경험이기때 후인들의 경계로 삼고자 한다.

傷寒 vs 傷寒論

- ✓ 傷寒學 : '傷寒'이라는 질병에 대한 탐구
 - 상한론이 상한을 치료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Ex) 傷寒 처방 중 다수는 상한론 이외의 것
- ✓ 傷寒論學 : '傷寒論'이라는 텍스트에 대한 탐구
 -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이해 (서지적 접근)
 - 텍스트 내용의 해석 注解傷寒論
 - 질병과 병증에 대한 이해 傷寒明理論
 - 처방에 대한 이해 傷寒類方, 類聚方
 - 본초에 대한 이해 藥徵, 本經疏證

傷寒



동의보감

傷寒

傷寒

“仲景張先生傷寒纂要”

寒

溫暑

“河間劉先生溫暑纂要”

內傷

“東垣李先生內傷纂要”

雜病

“丹溪朱先生雜病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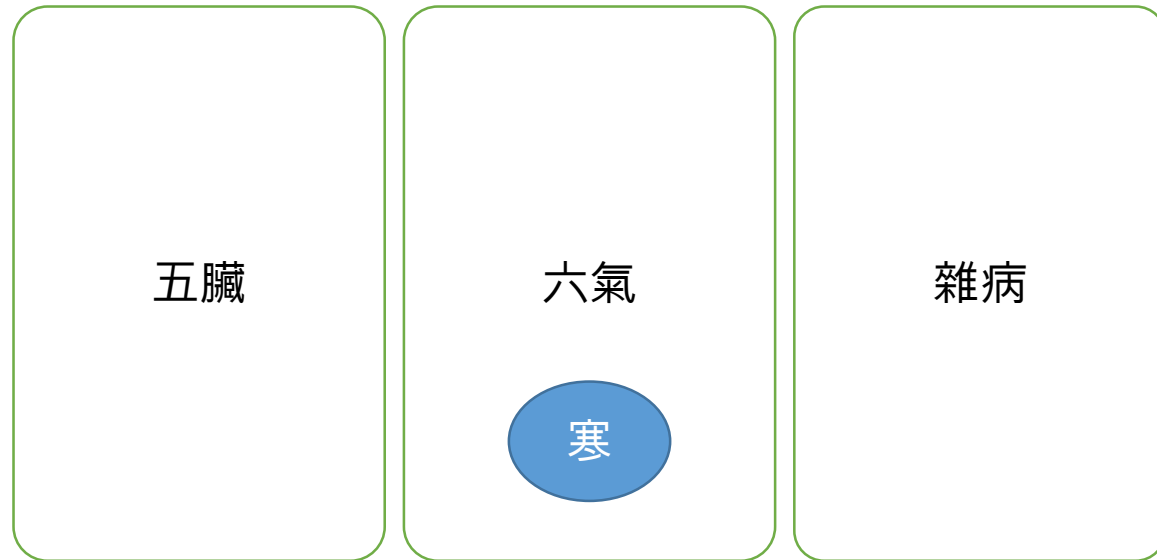
寒

금원사대가 이후 (의학입문)

故曰外感法仲景，內傷法東垣，熱病用河間，雜病用丹溪，一以貫之，斯醫道之大全矣。

《明醫雜著》

傷寒



금원사대가 이전 (태평성혜방)

傷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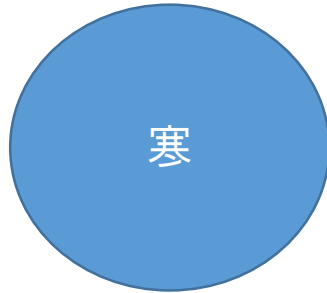
傷寒

雜病

상한잡병론

傷寒

寒邪



傷寒



열성 전염병

溫病

